

투데이 칼럼

제2연평해전 21년

2002년 6월 대한민국은 월드컵 축구 열기로 뜨거웠다. 온 국민이 들떠 있던 6월 29일 저녁 한국과 터키의 3, 4 위전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 때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 경비정을 기습 공격했다.

바로 제2연평해전이다.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 2척을 격파하고 북한군 30여명에게 인명피해를 입히며 용감하게 싸워 격퇴시켰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도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제2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올해로 21년이 됐다. 승리의 그날을 기억하면서도, 한편으로 바다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들이 있다. 21주기를 맞이한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에서는 장병들을 기억하는 목련과 현화가 이어졌다.

이에 앞서 1999년 6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선제 사격으로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우리 군은 사망 장병 없이 9명이 다치고, 북한에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 뒤 2002년 6월, 월드컵에 들뜬 시기를 틈타 북쪽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다시 넘어 우리 함정을 기습 공격하면서 제2연평해전은 시작됐다.

30분간의 교전 끝에 승리를 거뒀지



정복규
논설위원

만,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기념관엔 그날의 참수리호 357호정 모형이 전시돼 있다. 그대로 재현한 258개의 총탄 흔적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생전의 사진과 편지, 군복 인식표 등 NLL을 지키다가 스러져 간 전사자들의 유품은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자, 남편, 혹은 아버지였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죽음과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NLL을 지켜낸 해군들이다. 승전의 역사를 쓴 제2연평해전은 우리에게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그날 차가운 바다에서 희생된 이들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이 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짙어지만 간다. 매일 아침, 한 남성이 하늘을 향해 경례를 한다.

제2연평해전 당시 포탄을 모두 쏘

고도 방아쇠를 꼭 쥔 채 시신으로 발견된 황도현 중사의 아버지 황은택씨다.

오늘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리는 작은 컨테이너 추모관에서 향을 피운다. 눈길에 닿는 곳곳의 물건마다 아들과 함께한 추억이 담겨있다. 겨울에는 함께 눈 구경을 가고, 부모님 생신엔 꽃 선물을 전했던 다정하고 든든했던 아들이었다.

곧 다가오는 어머니의 생일, 이즈음이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짙어진다. 황 중사는 책과 시를 좋아하는 문학 소년이었다. 교사를 꾸며 대학 생활을 하다가 부사관으로 입대했다.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남북된 아픈 가족사가 있는 황 중사는, 교사의 꿈을 잠시 미루고 군 복무에 나섰다. 휴가를 마치고 나라의 바다를 지키러 집을 나서서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다.

그리움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되었다. 아버지는 틈틈이 아들이 쓴 글들을 꺼내 읽으며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사자들에게 대한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 앞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한다.

노부모는 아들의 송고한 희생이 기억되기를 바란다. 매일 같이 1인 시위에 나서는 여성도 있다. 제2연평해전 당시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킨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하나씨다.

그가 거리에 나선 건, 순직한 군인과 유족에게 그에 맞는 대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사는 순국 당시 중사였지만 2015년 추서진 급했다. 더 많은 연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상사를 비롯한 순국 장병들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한다.

남편이 남긴 흔적의 하나인 연금마저 희미하게 처리되고 싶진 않다. 관련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하나씨는 이 법이 군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을 위한 법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연평해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과연 무엇일까.

사설

로스쿨 무서운 오탈자

로스쿨 졸업생은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법조인의 길이 막혀버린다. '변시 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변협이 '오탈자' 구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른바 '변시 오탈자'는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정해진 기간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5년 동안 계속 시험만 본다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개발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오탈자들은 10년간의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시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일로부터 5년간 5번만 응시할 수 있다.

예외 사유로는 병역 이행만 인정되고 출산이나 질병, 사고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변시 오탈자는 1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사법고시 때와 같은 '고시 낭인' 속출을 막기 위한 장치라지만,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같은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우선 응시 제한 예외 사유에 '법조 실무 경력'을 추가해, 경력을 쌓은 기간만큼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은 로스쿨에서 적성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유사한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도 구상 중이다. 다만 변협의 뜻대로 변시 오탈자 구제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오탈자 구제에 대해 찬반 여론이 갈리는 데다, 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단기간 내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부 요양병원 노인 학대

최근 요양원·요양병원에서 고령자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전북 군산의 어느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성기를 비닐봉지로 싸고 그 위에 기저귀를 채워 공분을 샀다.

인천의 어느 요양병원 간병인은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조각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 광양의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학대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노인 학대는 2005년 집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대 신고는 2020년 874건에서 2021년 217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설 내 학대로 판정된 것은 623건이지만 노인들이 학대 위협성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로 처벌을

받는 대다수는 무자각 간병인에 의해 발생한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도 문제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50·60대가 대부분이다. 94.7%가 여성으로 80대 이상이 대부분인 요양원 입소자를 돌보기에 역부족이다. 과격한 행동의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여성 요양보호사도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안전장치 등 보조 도구를 써야 한다. 폭행의 기준이 모호해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와 노인 학대 신고앱도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중요하다. CCTV 설치는 억울한 폭행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의 누명도 벗을 수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다연장 로켓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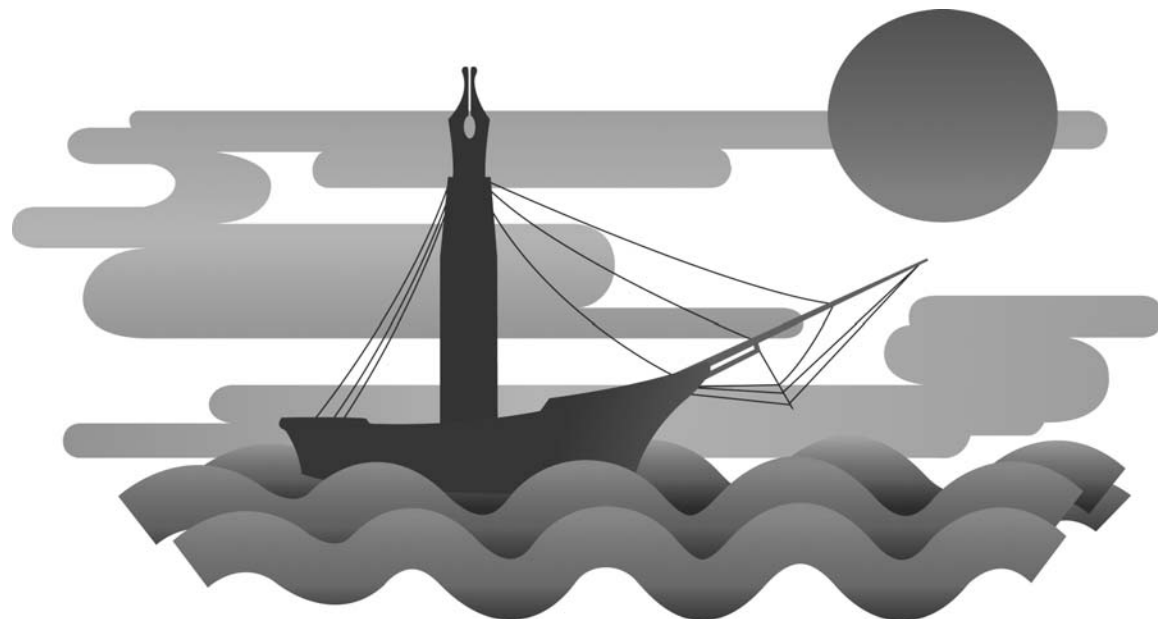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지난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진영을 향해 다연장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바이든 “푸틴, 핵무기 사용하진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미-노르딕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비그너 용병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하리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